

2018 비판사회학대회 “신자유주의 극복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모델”
기획세션5 <대안>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포용적 사회경제모델 탐색
2018년 10월 27일(토) 13:50-15:5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탈노동 사회(post-work society)와 탈자본주의(Postcapitalism)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리프킨(Rifkin, 2014)은 기술결정론적 관점을 대표한다. 리프킨의 출발점은 비배제성, 비경합성, 한계비용 제로라는 디지털 재화의 성격이다. 지적 재산권 체제에 의한 보호가 없다면 이러한 재화는 상품일 수 없다. 리프킨에 의하면 디지털 재화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이러한 모순은 시장메카니즘의 파괴, 소유권의 공동화, 노동과 이윤 사이의 연관관계의 파괴를 야기하고 결국 탈자본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1995년 저작에서 그는 이미 ‘노동의 종말’을 말한 바 있다(Rifkin, 1995). 디지털자본주의의 기술적 과정이 탈자본주의로 이어진다는 리프킨의 가정은 자동화, 탈노동, 탈자본주의를 동일한 변화로 취급하며 물질적 생산에 대한 노동투입 없이 경제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메이슨(Mason, 2015)은 2008년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신자유주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고 탈자본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에서 리프킨의 논의를 연상시키는 메이슨의 탈자본주의론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는 리프킨의 논의와 구별된다. 첫 번째는 비교적 작은 차별성으로서 메이슨이 보다 분명하게 (그의 이해방식에 따르자면 맑스의) 노동가치론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메이슨은 디지털 전환이 야기할 임금노동의 축소가 가치기반의 잠식으로 이어져서 잉여가치 생산이 정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펼친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인데, 리프킨과 달리 메이슨은 디지털 전환에서 탈자본주의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기술낙관론을 벗어나고자 애쓴다는 점이다. 메이슨에 따르자면 탈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축소, 금융시스템의 사회화, 공유지 생산의 촉진, 지대적 비즈니스모델의 규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등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 메이슨에 따르자면 이러한 개입은 현재와 같은 국가기구가 아니라 권위적이지 않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프킨과 메이슨의 공통점은 둘 다 디지털 자본주의를 불안정하며 지속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며 탈자본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노동투입의 축소와 가치기반의 잠식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서니섹과 윌리엄스(Srnicek and Williams,

2016)에게서도 발견된다. 메이슨, 셔니섹, 윌리엄스의 입장이 리프킨과 구별되는 단 하나의 지점은 정치적 개입의 필수성, 개입수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다.


디지털 전환의 불안정성과 지속불가능성, 노동투입의 종식과 탈자본주의의 동일화는 위에서 소개한 모든 이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는 디지털 자본주의 논의에서 피할 수 없는 논점이 되며 특히 맑스주의적 비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점(Fuchs, 2016)이 된다. 1990년대부터 포스트오페라이즘(Postoperaism)은 인지자본주의론을 발전시켰는데, 이에 따르자면 직접적 생산과정 외부에서도 가치창출이 가능하며 임금노동 기반을 벗어나서도 자본축적이 가능하다(Boutang, 2012; Lazzarato, 2016). 80년대 말에도 생산이 아니라 혁신이 잉여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예견(Morris-Suzuki, 1986)은 이미 등장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기술혁신은 더 이상 특별잉여가치, 곧 특별이윤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윤생산방식이 된다. 예컨대 자본주의는 디지털 재화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듯이 부단한 혁신에 의해서만 이윤을 창출하며 이는 셔니섹과 윌리엄스가 생각하듯이 더 이상 경쟁에 의해 강제되어 특별이윤을 만들어내는 메카니즘이 아니라 자본축적이 일반적 법칙이 된다.¹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을 따른다면 디지털 자본주의는 고유한 운동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자본축적 방식이 불안정했던 만큼 불안정하며 또한 안정적이었던 만큼 안정적이다. 차이점은 축적메카니즘과 불안정성의 변화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코 기본소득 논의에 별개의 논의일 수 없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축소할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소득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생산주의적 입장이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본소득보다 자동화 시대에 걸맞은 숙련향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인 디지털 자본주의를 고려할 때 차라리 현실성이 없는 논의이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논의는 실리콘 밸리의 기본소득 논의와 “모든 인민을 위한 벤처캐피탈”(브레흐만,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 필요하다는 기술주의적 기본소득 논의이며, 여기에 대한 개입은 기본소득 논의가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다. 몇 가지 예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화된 서술을 위한 최종적 토론을 제안한다.

1 비록 모리스-스즈키(Morris-Suzuki, 1986)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특징은 혁신과정 곧 인지생산과정에서 생산과 재생산,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특징과도 연결된다.

1. 탈노동과 탈자본주의는 동일한 사회변화가 아니다. 이는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의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척도는 투하된 노동량이 아니며 사회적 평균노동량이다. 이 점에서 맑스와 리카도는 완전히 구별되는 가치론을 제시했다. 나아가, 사회적 평균노동량은 교환에 의하여 결정되며 화폐는 투하된 노동량과 투하된 자본량을 미래 가치의 관점에서 현재화하는 가치척도라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화폐의 기능은 앞으로 동일 상품 생산에서 투하되어야 할 자본량과 노동량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화폐론적 가치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적 노동의 축소나 탈노동은 순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가치기반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곧바로 탈자본주의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2. 『정치경제학 요강』의 ‘기계’(Maschinenfragment)는 맑스주의적 탈노동론의 원천 텍스트이다(Gorz, 2004; Lotz, 2014). 이 텍스트에서 맑스는 탈노동과 탈자본주의를 동일한 관점에서 다룬다. 하지만 맑스가 이 텍스트에서 일반지성(General Intellect)과 자본주의의 종식에 대하여 말한 부분은 『자본』 최종본의 화폐론적 가치론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충분히 기각될 수 있다. 일반지성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가치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확장할 뿐이다. 다만 이러한 확장이 임금노동, 자영업,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여기에서 기본소득은 일반지성의 자본주의를 위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지성의 자본주의는 가능하며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목전에 와 있다. 반면에 그곳에서 자본주의와 자동화의 모순적 상관관계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충분히 현재화할 수 있다.
3. 생산과 재생산 전체에 대한 일반지성의 등장이 자본주의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플랫폼 자본주의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뜻한다. Capitalism as a Service! 서비스 공급자가 플랫폼을 소유하며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획득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혁신 자본계급과 하인(Servant) 계급으로의 재편성. 메이슨은 디지털 전환의 파국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인지자본주의론은 새로운 축적방식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축적방식에는 가장 중요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4. 플랫폼 자본주의는 훨씬 더 생태적이며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고질적 문제인 실현

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 같지만 대중소비 기반을 붕괴시킨다. 이러한 붕괴는 임금노동과 소득의 연관관계의 해체에 의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위기가 자본주의 틀 안에서 해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유럽의회가 2015년 보고서에서 로봇세와 기본소득을 논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실리콘 밸리의 기본소득 논의도 사이언스 픽션에 빠진 몇몇 CEO의 변덕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투입이 최소화된 자본주의에서 소비기반을 재구축하면서 기술혁신을 새로운 자본축적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자본주의는 일종의 총자본가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도입되는 기본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그 최대한은 생계수준이 될 것이다. 지급수준의 문제보다 좀 더 분명한 점은 기본소득 도입은 플랫폼 자본의 사회인프라 지배, 생산과 재생산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지성에 대한 통제를 위협할 수 없도록 조세형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유지분권이나 공공 플랫폼과 같은 모델은 애초에 배척될 것이다. 플랫폼 자본은 조세를 내겠지만 생산기업을 산업 플랫폼의 형태로 통제하며,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상생활을 통제하며 도시행정을 대체하며, 교통 서비스 공급, 도로 감시 체제, 나아가 교도소까지 기업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인지자본주의론이 말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안정적인 지식기반생산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아직 이러한 모델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메이슨과 셔니셔의 탈노동-탈자본주의론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안정적인 디지털 자본주의의 구축이 아니라 탈자본주의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5. 자동화, 일반지성, 탈노동이 탈자본주의로 이어지려면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에 대한 모색과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 단지 분배차원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 전체를 통제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발전 현황에 대한 대안적 개입모델과 기본소득을 연동시켜야 한다. 초보적인 개입모델로 공유지분권 배당 모델(국민, 2018), 나아가서 공공 플랫폼과 공유부 배당의 연동모델 등을 기본소득 논의의 내부에서 확장시켜야 한다. 플랫폼에 대한 전 사회적 소유방식, 참여와 통제, 공유부에 대한 배당은 하나의 모델 안에서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입의 출발점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가치생산과정이 되어버린 혁신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인류의 소유권이다. 

참고문헌

Boutang, Yann Moulrier (2012). Cognitive Capitalism. Cambridge and Malden: Polity Press.

Fuchs, Christian (2016): “Knowledge, Technology, and the General Intellect in the Grundrisse and its «Fragement on Machines»”, In Fuchs, Christian, Reading Marx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pp. 360~375.

Gorz, André (2004): Wissen, Wert und Kapital. Zürich.

Lazzarato, Paul (2016). Sign and Machines: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Los Angeles: Semiotext(e) Foreign Agents Series.

Lotz, Christian (2014). Karl Marx. Das Maschinenfragment, Hamburg.

Morris-Suzuki, Tessa (1986), “Capitalism in the Computer Age”, New Left Review I/160, November-December 1986.

Mason, Paul (2015). PostCapitalism: A Guide to our Future. Allen Lane.

Rifkin, Jeremy (1995).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New York: Putnam Publishing Group.

Rifkin, Jeremy (2014).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Srnicek, Nick and Alex Williams (2016). Inventing the Future: Postcapitalism and a World Without Work, London: Verso.

금민 (2018). “[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In http://basicincomekorea.org/opinion_20180918-min-geum/



■ 이 글은 2018년 10월 10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11회 콜로키움에서 초고가 발표되었으며, 2018년 10월 27일 2018 비판사회학대회 <세션5. (대안)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포용적 사회경제모델 탐색>에서 “탈노동 사회(post-work society)와 탈자본주의(Postcapitalism)”의 제목으로 발표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